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2항>

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1항>

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
- 꽃이, 꽃마저, 꽃밖에, 꽃에서부터, 꽃으로만, 꽃이나마, 꽃이다, 꽃입니다, 꽃처럼, 어디
까지나, 거기도, 멀리는, 웃고만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2항>

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

- 아는 것이 힘이다., 나도 할 수 있다., 먹을 만큼 먹어라., 아는 이를 만났다., 네가 뜻한
바를 알겠다.,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.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3항>

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

- 한 개, 차 한 대, 금 서 돈, 소 한 마리, 옷 한 벌, 열 살, 조기 한 손, 연필 한 자루, 버
선 한 죽, 집 한 채, 신 두 켤레, 북어 한 쾌

다만,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.

- 두시 삼십분 오초, 제일과, 삼학년, 육층, 1446년 10월 9일, 2대대, 16동 502호, 제1실습
실, 80원, 10개, 7미터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4항>

수를 적을 때에는 '만(萬)' 단위로 띄어 쓴다.

-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/ 12억 3456만 7898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5항>

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.

- 국장 겸 과장 / 열 내지 스물 / 청군 대 백군 / 책상, 걸상 등이 있다 / 이사장 및 이
사들 / 사과, 배, 굴 등등 / 사과, 배 등속 / 부산, 광주 등지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6항>

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.

- 좀더 큰것, 이말 저말, 한잎 두잎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7항>

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.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- ㄱ: 불이 꺼져 간다., 내 힘으로 막아 낸다.,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.,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., 비가 올 듯하다., 그 일은 할 만하다., 일이 될 법하다., 비가 올 성싶다., 잘 아는 척 한다.

- ㄴ: 불이 꺼져간다., 내 힘으로 막아낸다., 어머니를 도와드린다., 그릇을 깨뜨려버렸다., 비가 올듯하다., 그 일은 할만하다., 일이 될법하다., 비가 올성싶다., 잘 아는척한다.

다만,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,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.

-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!, 책을 읽어도 보고.....,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.,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., 그가 올 듯도 하다., 잘난 체를 한다.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8항>

성과 이름,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, 이에 덧붙는 호칭어,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.

- 김양수(金良洙), 서화담(徐花潭), 채영신 씨, 최치원 선생, 박동식 박사, 충무공 이순신 장군

다만, 성과 이름,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.

- 남궁억/남궁 억, 독고준/독고 준, 황보지봉(皇甫芝峰)/황보 지봉

<띄어쓰기 - 한글 맞춤법 제49항>

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.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- ㄱ: 대한 중학교,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

- ㄴ: 대한중학교, 한국대학교 사범대학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가운뎃점 규정>

(1)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.

- 민수·영희, 선미·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.

- 지금의 경상남도·경상북도, 전라남도·전라북도, 충청남도·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.

(2)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.

- 한(韓)·이(伊)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.

- 우리는 그 일의 참·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.
- 하천 수질의 조사·분석
- 빨강·초록·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.

다만,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.

- 한(韓) 이(伊)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.
-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.
- 하천 수질의 조사, 분석
- 빨강, 초록,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.

(3)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.

- 상·중·하위권 / 금·은·동메달 / 통권 제54·55·56호

[붙임]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.

- 상, 중, 하위권 / 금, 은, 동메달 / 통권 제54, 55, 56호

공통 성분이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인 말 중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는다.

- 검인정 교과서
- 우리 과는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.

■ 가운뎃점의 띄어쓰기: 가운뎃점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느낌표 규정>

(1)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.

-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! / 어머!

[붙임]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.

- 어, 벌써 끝났네. / 날씨가 참 좋군.

(2)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, 평서문, 명령문, 청유문에 쓴다.

- 청춘!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. / 이야, 정말 재밌다! / 지금 즉시 대답해! / 앞만 보고 달리자!

(3)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.

- 이게 누구야! / 내가 왜 나빠!

(4)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.

- 네! / 네, 선생님! / 흥부야! / 언니!

■ 느낌표의 띄어쓰기: 느낌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대괄호 규정>

(1)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.

-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.[윤석중 전집(1988), 70쪽 참조]

- 이번 회의에는 두 명[이혜정(실장), 박철용(과장)]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.

(2)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.

- 나이[年歲] / 낱말[單語] / 손발[手足]

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임을 나타낼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대괄호를 쓴다.

- 낱말[word], 문장[sentence], 책[book], 독일[도이칠란트], 국제 연합[유엔]

- 자유 무역 협정[FTA] / 에프티에이(FTA)

-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[UNESCO] / 유네스코(UNESCO)

- 국제 연합[United Nations] / 유엔(United Nations)

(3)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.

- 그것[한글]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.

- 신경준의 <여암전서>에 ""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,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(白雲)이라 하며 [이하 생략]""

-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.[원문에는 '업다'임.]

대괄호는 주로 문장이나 단락처럼 비교적 큰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 쓰인다.

■ 대괄호의 띄어쓰기: 여는 대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대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마침표 규정>

(1) 서술, 명령,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.

-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.

- 제 손을 꼭 잡으세요.

- 집으로 돌아갑시다.

[붙임 1]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.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- ㄱ. 그는 ""지금 바로 떠나자.""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.
- ㄴ. 그는 ""지금 바로 떠나자""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.

[붙임 2]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.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- ㄱ.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.
 - ㄴ.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
- 다만,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압록강은 흐른다 / 꺼진 불도 다시 보자 / 건강한 몸 만들기

(2)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. '년, 월, 일'을 각각 마침표로 대신하여 쓰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된다.

- 1919. 3. 1. / 10. 1.~10. 12.

(3)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.

- 3.1 운동 / 8.15 광복

[붙임]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.

- 3·1 운동 / 8·15 광복

(4) 장, 절,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.

- 가. 인명 / ㄱ. 머리말 / I. 서론 / 1. 연구 목적

■ 마침표의 띄어쓰기: 마침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물결표 규정>

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.

- 9월 15일~9월 25일 / 김정희(1786~1856) / 서울~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. / 이번 시험의 범위는 3~78쪽입니다.

[붙임]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.

- 9월 15일-9월 25일 / 김정희(1786-1856) / 서울-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. / 이번

시험의 범위는 3-78쪽입니다.

- 물결표의 띄어쓰기: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물음표 규정>

(1)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.

- 점심 먹었어?
-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?
-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?
-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?
- 지금?
- 네?

[붙임1]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,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.

- 너는 중학생이냐, 고등학생이냐?
-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? 어디서 왔니? 무엇하러 왔니?

[붙임2]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.

-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나.
-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.

다만,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- 역사란 무엇인가
-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

(2)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,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,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.

-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(?) 정도인 것 같다.
- 30점이라, 거참 훌륭한(?) 성적이군.

(3)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.

- 최치원(857 ~ ?)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.
-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(1690? ~ 1777?)의 자는 자청이고, 호는 우곡이다.

- 물음표의 띄어쓰기: 물음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붙임표 규정>

(1)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.

- 멀리뛰기는 도움닫기-도약-공중 자세-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.
- 김 과장은 기획-실무-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.

(2)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.

- 드디어 서울-북경의 항로가 열렸다.
- 원-달러 환율
- 남한-북한-일본 삼자 관계

경우에 따라서는 붙임표 대신 쉼표나 가운뎃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.

- 남한, 북한, 일본 삼자 관계
- 남한·북한·일본 삼자 관계

■ 붙임표의 띄어쓰기: 붙임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빗금 규정>

(1)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.

- 먹이다/먹히다, 남반구/북반구, 금메달/은메달/동메달, ()이/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.

(2)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.

- 100미터/초, 1,000원/개

(3)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.

- 산에 / 산에 / 피는 꽃은 /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

다만, 연이 바뀌를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.

- 산에는 꽃 피네 / 꽃이 피네 / 갈 봄 여름 없이 / 꽃이 피네 // 산에 / 산에 / 피는 꽃은 /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

■ 빗금의 띄어쓰기: (1)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되,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된다. (2)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. (3)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,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소괄호 규정>

(1)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.

- 니체(독일의 철학자)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.
- 2014. 12. 19.(금)
-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(매화, 난초, 국화, 대나무)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.

(2)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.

- 기호(嗜好), 자세(姿勢)
- 커피(coffee), 에티켓(étiquette)

(3)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.

-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'선생(님)'이라는 말을 덧붙인다.
- 광개토(대)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.

(4)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,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.

- 현우: (가쁜 숨을 내쉬며) 왜 이렇게 빨리 뛰어?
- ""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. 그러다 보니,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."" (웃음)

(5)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.

- 우리나라의 수도는 ()이다.
-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.
민수가 할아버지() 꽃을 드렸다.

(6)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.

- 사람의 인격은 (1) 용모, (2) 언어, (3) 행동, (4)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.
- (가) 동해, (나) 서해, (다) 남해

■ 소괄호의 띄어쓰기: 여는 소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. (4)와 (6)에서 여는 소괄호는 앞말과 띄어 쓴다.

■ 괄호와 마침표, 물음표, 느낌표 등의 위치와 띄어쓰기: 일반적으로 마침표, 물음표, 느낌표 등은 괄호 앞에 쓴다. 즉, 문장이 끝나면 바로 마침표 등을 쓴 후에 괄호를 쓰면 된다. 다만, 괄호 안의 내용이 사실상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침표 등을 괄호 뒤에 쓰기도 한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쉼표 규정>

(1)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.

- 근면, 검소,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.
- 충청도의 계룡산, 전라도의 내장산,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.
-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, 살기에 편한지,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
다만, (가) 쉽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.

-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.
-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.

(나)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쉽표를 쓰지 않는다.

- 광역시: 광주, 대구, 대전.....

(2)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.

- 닭과 지네,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.

(3)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.

- 5, 6세기
- 6, 7, 8개

(4)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.

- 첫째, 몸이 튼튼해야 한다.
- 마지막으로,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.

(5)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.

- 콩 심은 데 콩 나고, 팥 심은 데 팥 난다.
-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,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.

(6)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.

- 여름에는 바다에서,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.

(7)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.

- 지은아, 이리 좀 와 봐.
- 네, 지금 가겠습니다.

(8)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'곧', '다시 말해'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.

- 책의 서문,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.
-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,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.

(9)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.

- 열정,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.

(10)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.

- 그의 애국심,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.

(11)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

- 이리오세요, 어머니.
- 다시 보자, 한강수야.

(12)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.

- 갑돌이는,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.
- 철원과,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.

(13)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.

- 나는, 솔직히 말하면,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.
- 영호는 미소를 띠고,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, 그들을 맞았다.

(14)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.

- 내가,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?
-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, 우리만이, 승리로 이끌 수 있다.

(15)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.

- 선생님, 부, 부정행위라니요? 그런 건 새,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

■ 쉼표의 띄어쓰기: 쉼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쌍점 규정>

(1)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.

- 문방사우: 종이, 붓, 먹, 벼루
- 일시: 2014년 10월 9일 10시

-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.(예: 남궁, 선우, 황보)
- 올림표(#):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.

(2)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.

- 김 과장: 난 못 참겠다.
- 아들: 아버지,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.

(3) 시와 분,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.

- 오전 10:20(오전 10시 20분)
- 두시연해 6:15 (두시연해 제6권 제15장)

(4) 의존 명사 '대'가 쓰일 자리에 쓴다.

- 65:60(65 대 60)
- 청군:백군 (청군 대 백군)

■ 쌍점의 띄어쓰기: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(3)과 (4)에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작은따옴표 규정>

(1)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.

- 그는 ""여러분! '시작이 반이다.'라는 말 들어 보셨죠?""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.

(2)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.

- 나는 '일이 다 틀렸나 보군.' 하고 생각하였다.
- '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.'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.

소제목,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, 상호, 법률, 규정 등을 나타낼 때에도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. 그리고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에도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.

■ 작은따옴표의 띄어쓰기: 여는 작은따옴표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작은따옴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줄임표 규정>

(1)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.

- ""어디 나하고 한번....."" 하고 민수가 나섰다.

줄임표로써 문장이 끝나는 것이므로 줄임표 뒤에는 마침표나 물음표 또는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.

(2)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.

- ""빨리 말해!""

- "".....""

(3)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.

- '고유'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.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,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(4)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.

- ""우리는 모두..... 그러니까..... 예외 없이 눈물만..... 흘렸다.""

[붙임 1]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.

- ""어디 나하고 한번....."" 하고 민수가 나섰다.

- ""실은..... 저 사람.....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.""

점을 아래에 찍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. 마침표를 포함하면 일곱 점을 찍는 셈이다.

[붙임 2]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.

- ""어디 나하고 한번...."" 하고 민수가 나섰다.

- ""실은... 저 사람...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.""

마침표의 사용 여부는 여섯 점을 찍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.

[붙임 3]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 다만, (3)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.

■ 줄임표의 띄어쓰기: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(3)과 같은 용법으로 쓸 때는 앞뒤를 띄어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줄표 규정>

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.

-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'역사 바로잡기 — 근대의 설정 —'이다.

- '환경 보호 — 숲 가꾸기 —'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.

다만,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.

-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'역사 바로잡기 — 근대의 설정'이다.
- '환경 보호 — 숲 가꾸기'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.

[붙임]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.

■ 줄표의 띄어쓰기: 줄표는 앞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공백이 너무 넓어 보여서 문서 편집이나 디자인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뒤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중괄호 규정>

(1)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.

(2)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.

- 아이들이 모두 학교{에, 로, 까지} 갔어요.

■ 중괄호의 띄어쓰기: 여는 중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중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큰따옴표 규정>

(1)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.

- ""어머니, 제가 가겠어요.""
- ""아니다. 내가 다녀오마.""

(2)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.

- 나는 ""어, 광훈이 아니냐?""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.
-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""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.""라는 시구를 떠올렸다.
-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
 ""할머니,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""

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에도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.

■ 큰따옴표의 띄어쓰기: 여는 큰따옴표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큰따옴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문장 부호 - 문장 부호 홑낫표와 홑화살괄호 규정>

소제목,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, 상호, 법률,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.

- 「국어 기본법 시행령」은 「국어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「축배의 노래」이다.
- 사무실 밖에 「해와 달」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.
- 〈한강〉은 사진집 《아름다운 땅》에 실린 작품이다.
- 백남준은 2005년에 〈엄마〉라는 작품을 선보였다.

[붙임]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.

- 사무실 밖에 '해와 달'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.
- '한강'은 사진집 "'아름다운 땅'"에 실린 작품이다.

■ 홑낫표, 홑화살괄호의 띄어쓰기: 여는 홑낫표와 여는 홑화살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, 닫는 홑낫표와 닫는 홑화살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>

받침에는 'ㄱ, ㄴ, ㄹ, ㅁ, ㅂ, ㅅ, ㅇ'만을 쓴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>

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>

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,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1>

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는 다음과 같다.

자음의 경우, 음절의 위치(모음 앞, 자음 앞 또는 어말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p는 ㅍ 또는 ㅂ, 프로 표기한다.

b는 ㅃ 또는 브로 표기한다.

t는 ㅌ 또는 ㅅ, 트로 표기한다.

d는 ㄸ 또는 드로 표기한다.

k는 ㅋ 또는 ㆁ, 크로 표기한다.

g는 ㆁ 또는 그로 표기한다.

f는 ㅍ 또는 프로 표기한다.

v는 ㅂ 또는 브로 표기한다.

θ는 ㅅ 또는 스로 표기한다.

ð는 ㄷ 또는 드로 표기한다.

s는 ㅅ 또는 스로 표기한다.

z는 ㅈ 또는 즈로 표기한다.

ʃ는 시 또는 슈로 표기한다.

ʒ는 ㅈ 또는 지로 표기한다.

ts는 ㅊ 또는 츠로 표기한다.

ɕ는 ㅈ 또는 즈로 표기한다.

tʃ는 ㅊ 또는 치로 표기한다.

ʤ는 ㅈ 또는 지로 표기한다.

m은 ㅁ으로 표기한다.

n은 ㄴ으로 표기한다.

ɲ은 니 또는 뉴로 표기한다.

ŋ은 ㅇ으로 표기한다.

l은 ㄹ 또는 ㄹㄹ로 표기한다.

r은 ㄹ 또는 르로 표기한다.

h는 ㅎ 또는 흐로 표기한다.

ç는 ㅎ 또는 히로 표기한다.

x는 ㅎ 또는 흐로 표기한다.

반모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j는 이로 표기한다.

ɥ는 위로 표기한다.

w는 오 또는 우로 표기한다.

모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i는 이로 표기한다.

y는 위로 표기한다.

e는 예로 표기한다.

ø는 외로 표기한다.

ɛ는 예로 표기한다.

ɛ는 앵으로 표기한다.

œ는 외로 표기한다.

æ는 애로 표기한다.

a는 아로 표기한다.

ɑ는 아로 표기한다.

α는 앙으로 표기한다.

△는 어로 표기한다.

ο는 오로 표기한다.

ο는 옹으로 표기한다.

o는 오로 표기한다.

u는 우로 표기한다.

ə는 어로 표기한다.

ə는 어로 표기한다.

*ə는 독일어의 경우에는 '에',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'으'로 적는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2>

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는 다음과 같다.

자음의 경우, 음절의 위치(모음 앞, 자음 앞 또는 어말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b는 ㅂ 또는 브로 표기한다.

c는 ㅋ, ㅅ 또는 ㄱ, 크으로 표기한다.

ch는 ㅊ으로 표기한다.

d는 ㄷ 또는 드로 표기한다.

f는 ㅍ 또는 프로 표기한다.

g는 ㄱ, ㅎ 또는 그로 표기한다.

h는 표기하지 않는다.

j는 ㅎ으로 표기한다.

k는 ㅋ 또는 크로 표기한다.

l은 ㄹ 또는 ㄹㄹ로 표기한다.

ll은 이로 표기한다.

m은 ㅁ으로 표기한다.

n은 ㄴ으로 표기한다.

ñ는 니로 표기한다.

p는 꺄 또는 ㅂ, 꺄로 표기한다.
q는 ㅋ로 표기한다.
r은 ㄹ 또는 ㄴ로 표기한다.
s는 ㅅ 또는 ㅆ로 표기한다.
t는 ㅌ 또는 ㅊ로 표기한다.
v는 ㅃ으로 표기한다.
x는 ㅈ, ㅊ 또는 ㅊㅆ로 표기한다.
z는 ㅈ 또는 ㅆ로 표기한다.

반모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w는 ㅛ 또는 ㅜ로 표기한다.
y는 ㅝ로 표기한다.

모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a는 ㅏ로 표기한다.
e는 ㅓ로 표기한다.
i는 ㅗ로 표기한다.
o는 ㅜ로 표기한다.
u는 ㅜ로 표기한다.

* ll, y, ñ, w의 ‘이, 니, ㅛ, ㅜ’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합쳐서 1 음절로 적는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3>
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는 다음과 같다.

자음의 경우, 음절의 위치(모음 앞, 자음 앞 또는 어말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b는 ㅂ 또는 ㅃ로 표기한다.
c는 ㅋ, ㅌ 또는 ㅋ로 표기한다.
ch는 ㅋ으로 표기한다.
d는 ㄷ 또는 ㄴ로 표기한다.
f는 꺄 또는 꺄로 표기한다.
g는 ㄱ, ㄴ 또는 ㄴ로 표기한다.
l은 ㄹ 또는 ㄹㄹ로 표기한다.
m은 ㅁ으로 표기한다.

n은 ㄴ으로 표기한다.
P는 ㅍ 또는 프로 표기한다.
q는 ㅋ로 표기한다.
r은 ㄹ 또는 르로 표기한다.
s는 ㅅ 또는 스로 표기한다.
t는 ㅌ 또는 트로 표기한다.
v는 ㅂ 또는 브로 표기한다.
z는 ㅈ로 표기한다.

모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a는 아로 표기한다.
e는 에로 표기한다.
i는 이로 표기한다.
o는 오로 표기한다.
u는 우로 표기한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4>

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는 다음과 같다.

음절의 위치(어두, 어중 또는 어말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:

ア イ ウ エ オ는 아 이 우 에 오로 표기한다.
カ キ ク ケ コ는 가 기 구 게 고 또는 카 키 쿠 케 코로 표기한다.
サ シ ス セ ソ는 사 시 스 세 소로 표기한다.
タ チ ツ テ ト는 다 지 쓰 데 도 또는 타 치 쓰 테 토로 표기한다.
ナ ニ ヌ ネ ノ는 나 니 누 네 노로 표기한다.
ハ ヒ フ ヘ ホ는 하 히 후 헤 호로 표기한다.
マ ミ ム メ モ는 마 미 무 메 모로 표기한다.
ヤ イ ュ エ ヨ는 야 이 유 에 요로 표기한다.
ラ リ ル レ ロ는 라 리 루 레 로로 표기한다.
ワ (ヰ) ウ (ヱ) ヲ는 와 (이) 우 (에) 오로 표기한다.
ン은 ㄴ으로 표기한다.
ガ ギ グ ゲ ゴ는 가 기 구 게 고로 표기한다.
ザ ジ ズ ゼ ズ는 자 지 즈 제 조로 표기한다.
ダ チ ヅ デ ド는 다 지 즈 데 도로 표기한다.
バ ビ ブ ベ ボ는 바 비 부 베 보로 표기한다.

パ ピ プ ペ ポ는 파 피 푸 페 포로 표기한다.

キャ キュ キョ는 가 규 교 또는 카 큐 교로 표기한다.

ギャ ギュ ギョ는 가 규 교로 표기한다.

シャ シュ ショ는 샤 슈 쇼로 표기한다.

ジャ ジュ ジョ는 자 주 조로 표기한다.

チャ チュ チョ는 차 추 초 또는 차 추 초로 표기한다.

ニャ ニュ ニョ는 나 뉴 뇨로 표기한다.

ヒャ ヒュ ヒョ는 하 휴 효로 표기한다.

ビャ ビュ ビョ는 바 뷰 보로 표기한다.

ピャ ピュ ピョ는 파 퓨 표로 표기한다.

ミャ ミュ ミョ는 마 뮤 묘로 표기한다.

リャ リュ リョ는 라 류 료로 표기한다.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9절 제3항>

포르투갈어의 표기에서, d, t는 'ㄷ, ㅌ'으로 적는다. 다만,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i 앞이나 어말 e 및 어말 -es 앞에서는 'ㄸ, ㅌ'으로 적는다.

- Amado [a.m' a.dʊ] 아마두, Costa [k' ɔs.tə] 코스타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0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복합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.

- cuplike[kʌplaik] 컵라이크, bookend[bukend] 북엔드, headlight[hedlait] 헤드라이트, touchwood[tʌtʃwud] 터치우드, sit-in[sitin] 시트인, bookmaker[bukmeikə] 북메이커, flashgun[flæʃɡʌn] 플래시건, topknot[tɒpnɒt] 톱낫

2.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, 붙여 쓸 수도 있다.

- Los Alamos[lɔsæləməʊs] 로스 앨러모스/로스앨러모스, top class[tɒpkləs] 톱 클래스/톱 클래스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무성 파열음([p], [t], [k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([p], [t], [k])은 받침으로 적는다.

- gap[gæp] 갭, cat[kæt] 캣, book[buk] 북

2. 짧은 모음과 유음·비음([l], [r], [m], [n])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([p], [t], [k])은 받침으로 적는다.

- apt[æpt] 앵트, setback[setbæk] 셋백, act[ækt] 액트

3.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[p], [t], [k]는 '으'를 붙여 적는다.

- stamp[stæmp] 스탬프, cape[keip] 케이프, nest[nest] 네스트, part[pɑ:t] 파트, desk[desk] 데스크, make[meik] 메이크, apple[æpl] 애플, mattress[mætris] 매트리스, chipmunk[tʃipmʌŋk] 치프멍크, sickness[siknis] 시크니스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2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([b], [d], [g])은 '으'를 붙여 적는다.

- bulb[bʌlb] 벌브, land[lænd] 랜드, zigzag[zigzæg] 지그재그, lobster[lɒbstə] 로브스터, kidnap[kidnæp] 키드냅, signal[signəl] 시그널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3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마찰음([s], [z], [f], [v], [θ], [ð], [ʃ], [ʒ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어말 또는 자음 앞의 [s], [z], [f], [v], [θ], [ð]는 '으'를 붙여 적는다.

- mask[mɑ:sk] 마스크, jazz[dʒæz] 재즈, graph[græf] 그래프, olive[ɒliv] 올리브, thrill[θril] 스릴, bathe[beið] 베이드

2. 어말의 [ʃ]는 '시'로 적고, 자음 앞의 [ʃ]는 '슈'로, 모음 앞의 [ʃ]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'샤', '새', '셔', '셰', '쇼', '슈', '시'로 적는다.

- flash[flæʃ] 플래시, shrub[ʃrʌb] 슈러브, shark[ʃɑ:k] 샤크, shank[ʃæŋk] 생크, fashion[fæʃən] 패션, sheriff[ʃerif] 셰리프, shopping[ʃɒpiŋ] 쇼핑, shoe[ʃu:] 슈, shim[ʃim] 심

3. 어말 또는 자음 앞의 [ʒ]는 '지'로 적고, 모음 앞의 [ʒ]는 '저'으로 적는다.

- mirage[mirɑ:ʒ] 미라지, vision[viʒən] 비전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4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파찰음([tʃ], [dʒ], [tʃ], [dʒ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어말 또는 자음 앞의 [tʃ], [dʒ]는 '츠', '즈'로 적고, [tʃ], [dʒ]는 '치', '지'로 적는다.

- Keats[kɪˈtʃ] 키츠, odds[ɒdʒ] 오즈, switch[swɪtʃ] 스위치, bridge[bɪdʒ] 브리지,
Pittsburgh[ˈpɪtʃbɜːg] 피츠버그, hitchhike[ˈhɪtʃhaɪk] 히치하이크

2. 모음 앞의 [tʃ], [dʒ]는 'ㄷ', 'ㄸ'으로 적는다.

- chart[tʃɑːt] 차트, virgin[vɜːdʒɪn] 버진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6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유음([l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어말 또는 자음 앞의 [l]은 받침으로 적는다.

- hotel[həʊtel] 호텔, pulp[pʌlp] 펄프

2. 어중의 [l]이 모음 앞에 오거나,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([m], [n]) 앞에 올 때에는 'ㄹ'로 적는다. 다만, 비음([m], [n]) 뒤의 [l]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'ㄹ'로 적는다.

- slide[slaɪd] 슬라이드, film[fɪlm] 필름, helm[hɛlm] 헬름, swoln[swəʊln] 스월른,
Hamlet[hæmlɪt] 햄릿, Henley[henli] 헨리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8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중모음([aɪ], [aʊ], [eɪ], [ɔɪ], [oʊ], [aʊə])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
되, [ou]는 '오'로, [aʊə]는 '아워'로 적는다.

- time[taɪm] 타임, house[haʊs] 하우스, skate[skeɪt] 스케이트, oil[ɔɪl] 오일, boat[bəʊt] 보
트, tower[taʊə] 타워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9항>

영어의 표기에서, 반모음([w], [j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[w]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[wə], [wɔ], [wou]는 '워', [wɑ]는 '와', [wæ]는 '왜', [we]는 '웨', [wi]는 '위', [wu]는 '우'로 적는다.

- word[wɜːd] 워드, want[wɒnt] 원트, woe[wəʊ] 워, wander[wɒndə] 완더, wag[wæɡ] 왜그,
west[west] 웨스트, witch[wɪtʃ] 위치, wool[wʊl] 울

2. 자음 뒤에 [w]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, [gw], [hw], [kw]는 한 음절로 붙여 적는다.

- swing[swɪŋ] 스윙, twist[twɪst] 트위스트, penguin[peŋɡwɪn] 펭귄, whistle[hwɪsl] 휘슬, quarter[kwɔːtə] 쿼터

3. 반모음 [j]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'야', '애', '여', '예', '요', '유', '이'로 적는다. 다만, [d], [l], [n] 다음에 [jə]가 올 때에는 각각 '디어', '리어', '니어'로 적는다.

- yard[jɑːd] 야드, yank[jæŋk] 앵크, yearn[jɜːn] 연, yellow[jeləʊ] 옐로, yawn[jɔːn] 윤, you[juː] 유, year[jiə] 이어, Indian[ɪndjən] 인디언, battalion[bətæljən] 버탈리언, union[juːnjən] 유니언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3절 제1항>

프랑스어의 표기에서, 파열음([p], [t], [k]; [b], [d], [g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어말에서는 '으'를 붙여서 적는다.

- soupe[sup] 수프, tête[tɛt] 테트, avec[avɛk] 아베크, baobab[baɔbab] 바오바브, ronde[rɔːd] 룡드, bague[bag] 바그

2. 구강 모음과 무성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('구강 모음+무성 파열음+무성 파열음 또는 무성 마찰음'의 경우)은 받침으로 적는다.

- septembre[sɛptɑːbr] 셉탕브르, apte[apt] 압트, octobre[ɔktɔbr] 옥토브르, action[aksjɔ] 악시옹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3절 제2항>

프랑스어의 표기에서, 마찰음([ʃ], [ʒ])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1. 어말과 자음 앞의 [ʃ], [ʒ]는 '슈', '주'로 적는다.

- piège[pjɛːʒ] 피에주, acheter[aʃte] 아슈테, dégeler[deʒle] 데줄레

2. [ʃ]가 [ə], [w] 앞에 올 때에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 '슈'로 적는다.

- chemise[ʃəmiːz] 슈미즈, chevalier[ʃəvalje] 슈발리에, choix[ʃwa] 슈아, chouette[ʃwɛt] 슈에트

3. [ʃ]가 [y], [œ], [ø] 및 [j], [ɥ] 앞에 올 때에는 '쉬'로 적는다.

- chute[ʃyt] 쉬트, chuchoter[ʃyʃɔte] 쉬쇼테, pêcheur[pɛʃœːr] 페쉬르, fâcheux[fɑʃø] 파쇠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6절 제1항>

일본어의 표기에서, 축음(促音) [ッ]는 'ㅅ'으로 통일해서 적는다.

- サッポロ 삿포로, トットリ 돗토리, ヨッカイチ 윗카이치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8절 제8항>

폴란드어의 표기에서, 'ㄷ', 'ㅌ'으로 표기되는 자음(c, z) 뒤의 이중 모음은 단모음으로 적는다.

- stacja 스타차, fryzjer 프리제르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1절 제3항>

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.

- Hague 헤이그, Caesar 시저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1절 제4항>

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.

- Pacific Ocean 태평양, Black Sea 흑해

<외래어 표기법 -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1항>

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,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,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.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0항>

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괴팍-하다, -구면, 미루-나무, 미륵, 여느, 온-달, 으레, 케케-묵다, 허우대, 허우적-허우적

- ㄴ: 괴팍-하다/괴팍-하다, -구면, 미류-나무, 미력, 여느, 윈-달, 으레, 케케-묵다, 허위대, 허위적-허위적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1항>

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,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-구려, 깍쟁이, 나무라다, 미수, 바라다, 상추, 시러베-아들, 주책, 지루-하다, 튀기, 허드레, 호루라기

- ㄴ: -구료, 깍정이, 나무래다, 미시, 바래다, 상처, 실업의-아들, 주착, 지리-하다, 트기, 허드래, 호루루기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2항>

‘웃-’ 및 ‘윗-’은 명사 ‘위’에 맞추어 ‘윗-’으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윗-넓이, 윗-눈썹, 윗-니, 윗-당줄, 윗-덧줄, 윗-도리, 윗-동아리, 윗-막이, 윗-머리, 윗-목, 윗-몸, 윗-바람, 윗-배, 윗-벌, 윗-변, 윗-사랑, 윗-세장, 윗-수염, 윗-입술, 윗-잇몸, 윗-자리, 윗-중방

- ㄴ: 웃-넓이, 웃-눈썹, 웃-니, 웃-당줄, 웃-덧줄, 웃-도리, 웃-동아리, 웃-막이, 웃-머리, 웃-목, 웃-몸, 웃-바람, 웃-배, 웃-벌, 웃-변, 웃-사랑, 웃-세장, 웃-수염, 웃-입술, 웃-잇몸, 웃-자리, 웃-중방

다만 1.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‘위-’로 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위-짹, 위-쪽, 위-채, 위-층, 위-치마, 위-턱, 위-팔

- ㄴ: 웃-짹, 웃-쪽, 웃-채, 웃-층, 웃-치마, 웃-턱, 웃-팔

다만 2. ‘아래, 위’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‘웃-’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웃-국, 웃-기, 웃-돈, 웃-비, 웃-어른, 웃-웃

- ㄴ: 윗-국, 윗-기, 윗-돈, 윗-비, 윗-어른, 윗-웃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3항>

한자 ‘구(句)’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‘귀’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, ‘구’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구법(句法), 구절(句節), 구점(句點), 결구(結句), 경구(警句), 경인구(警人句), 난구(難句), 단구(短句), 단명구(短命句), 대구(對句), 문구(文句), 성구(成句), 시구(詩句), 어구(語句), 연구(聯句), 인용구(引用句), 절구(絶句)

- ㄴ: 귀법, 귀절, 귀점, 결귀, 경귀, 경인귀, 난귀, 단귀, 단명귀, 대귀, 문귀, 성귀, 시귀, 어귀, 연귀, 인용귀, 절귀

다만, 다음 단어는 ‘귀’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귀-글, 글-귀

- ㄴ: 구-글, 글-구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4항>

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,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귀찮다, 김, 따리, 무, 미다, 뱀, 뱀-장어, 빔, 샘, 생-쥐, 술개, 온-갖, 장사-치

- ㄴ: 귀치 않다, 기음, 또아리, 무우, 무이다, 배암, 배암-장어, 비음, 새암, 새앙-쥐, 소리

개, 온-가지, 장사-아치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5항>

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,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경황-없다, 궁상-떨다, 귀이-개, 낚새, 낙인-찍다, 내왕-꾼, 돛-자리, 뒤웅-박, 뒷물-대야, 마구-잡이, 맵자-하다, 모이, 벽-돌, 부스럼, 살얼음-판, 수두룩-하다, 암-죽, 어음, 일구다, 죽-살이, 퇴박-맞다, 한통-치다

- ㄴ: 경-없다, 궁-떨다, 귀-개, 낚, 낙-하다/낙-치다, 냉-꾼, 돛, 뿔-박, 뒷-대야, 막-잡이, 맵자다, 모, 벽, 부럼, 살-판, 수둑-하다, 암, 엄, 일다, 죽-살, 퇴-맞다, 통-치다

[붙임]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아래-로

- ㄴ: 알-로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6항>

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,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은 본말이며, ㄴ은 준말임.)

- ㄱ: 거짓-부리, 노을, 막대기, 망태기, 머무르다, 서두르다, 서투르다, 석새-삼베, 시-누이, 오-누이, 외우다, 이기죽-거리다, 찌꺼기

- ㄴ: 거짓-불, 놀, 막대, 망태, 머물다, 서둘다, 서툴다, 석새-베, 시-누/시-누, 오-누/오-누, 외다, 이죽-거리다, 찌끼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7항>

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,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,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,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거든-그리다, 구어-박다, 귀-고리, 귀-뿔, 귀-지, 까딱-하면, 꼭두-각시, 내색, 내숭-스럽다, 남남-거리다, 남남-이, 너[四], 녁[四], 다다르다, 땀-싸리, 더부룩-하다, -던, -던가, -던걸, -던고, -던데, -던지, -(으)려고, -(으)려야, 망가-뜨리다, 멀치, 반빛-아치, 보습, 본새, 봉숭아, 뽕-따귀, 빼개다[斫], 빼기다[誇], 사자-탈, 상-판대기, 서[三], 석[三], 설령(設令), -습니다, 시름-시름, 씹-씹, 아궁이, 아내, 어-중간, 오금-팽이, 오래-오래, -올시다, 웅골-차다, 우두커니, 잠-투정, 재봉-틀, 짓-무르다, 짚-북데기, 쪽, 천장(天障), 코-맹맹이, 흥-없다

- ㄴ: 거동-그리다, 구워-박다, 귀엣-고리, 귀-뿔, 귀에-지, 까딱-하면, 꼭둑-각시, 나색, 내홍-스럽다, 암남-거리다, 암남-이, 네, 너/네, 다닫다, 대-싸리, 더뿌룩-하다/듬뿌룩-하다, -

든, -든가, -든걸, -든고, -든데, -든지, -(으)르려고/-(으)르라고, -(으)르려야/-(으)르래야, 망그-뜨리다, 머루치/메리치, 반비-아치, 보십/보섭, 뽕새, 봉숭화, 뽕-따귀/뽕-따구니, 빠기다, 빠개다, 사지-탈, 쌍-판대기, 세/석, 세, 서령, -읍니다, 시늬-시늬, 썸벅-썸벅, 아궁지, 안해, 어지-중간, 오금-탱이, 도래-도래, -올습니다, 공골-차다, 우두머니, 잠-투세/잠-주정, 자봉-틀, 짓-물다, 짚-북세기, 짹, 천정, 코-맹녕이, 흥-헛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18항>

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도 허용한다.

- ㄱ: 네, 쇠-, 괴다, 꺾다, 씹다, 죄다, 찍다
- ㄴ: 예, 소-, 고이다, 꼬이다, 쏘이다, 조이다, 쪼이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0항>

사어(死語)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,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난봉, 낭떠러지, 설거지-하다, 애달프다, 오동-나무, 자두
- ㄴ: 봉, 낭, 설겅다, 애닭다, 머귀-나무, 오얏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1항>

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,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가루-약, 구들-장, 길품-삿, 까막-눈, 꼭지-미역, 나뭇-갓, 늪-다리, 두껍-달이, 떡-암죽, 마른-갈이, 마른-빨래, 메-찰떡, 박달-나무, 밥-소라, 사래-논, 사래-밭, 삿-말, 성냥, 솟을-무늬, 외-지다, 움-파, 잎-담배, 잔-돈, 조-당수, 죽데기, 지겟-다리, 짐-꾼, 푼-돈, 흰-말, 흰-죽
- ㄴ: 말-약, 방-돌, 보행-삿, 맹-눈, 총각-미역, 시장-갓, 노-닥다리, 두껍-창, 병-암죽, 건-갈이, 건-빨래, 반-찰떡, 배달-나무, 식-소라, 사래-답, 사래-전, 삿-마, 화-괵, 솟을-문(~紋), 벽-지다, 동-파, 잎-초, 잔-전, 조-당죽, 피-죽, 목-발, 부지-군(負持-), 분-전/푼-전, 백-말/부루-말, 백-죽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2항>

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,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개다리-소반, 겸-상, 고봉-밥, 단-벌, 마방-집, 민망-스럽다/면구-스럽다, 방-고래, 부항-단지, 산-누에, 산-줄기, 수-삼, 심-돋우개, 양-파, 어질-병, 윤-달, 장력-세다, 제석, 총각-무, 찢-술, 포수

- ㄴ: 개다리-밥상, 맞-상, 높은-밥, 훑-벌, 마바리-집, 민주-스럽다, 구들-고래, 뚝-단지, 멧-누에, 멧-줄기/멧-밭, 무-삼, 불-돋우개, 둥근-파, 어질-머리, 군-달, 장성-세다, 젓-돛, 알-무/알타리-무, 잇-술, 총-댕이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4항>

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,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귀밑-머리, 까-몽개다, 막상, 빈대-떡, 생인-손, 역-겹다, 코-주부
- ㄴ: 귓-머리, 까-무느다, 마기, 빈자-떡, 생안-손, 역-스럽다, 코-보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5항>

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,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,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-게끔, 검사-검사, 고구마, 고치다, 골목-쟁이, 광주리, 괴통, 국-물, 군-표, 길-잡이, 까치-발, 꼬창-모, 나룻-배, 납-도리, 농-지거리, 다사-스럽다, 다오, 담배-꽂초, 담배-설대, 대장-일, 뒤져-내다, 뒤통수-치다, 등-나무, 등-때기, 등잔-걸이, 떡-보, 똑딱-단추, 매-만지다, 먼-발치, 며느리-발톱, 명주-불이, 목-메다, 밀짚-모자, 바가지, 바람-꼭지, 반-나절, 반두, 버젓-이, 본-받다, 부각, 부끄러워-하다, 부스러기, 부지깽이, 부항-단지, 붉으락-푸르락, 비켜-덩이, 빙충-이, 빠-뜨리다, 뻗뻗-하다, 뽕-내다, 사로-잠그다, 살-풀이, 상투-쟁이, 새앙-손이, 셋-별, 선-머슴, 섭섭-하다, 속-말, 손목-시계, 손-수레, 쇠-고랑, 수도-꼭지, 숙성-하다, 순대, 술-고래, 식은-땀, 신기-롭다, 쌍둥-밤, 쏜살-같이, 아주, 안-걸이, 안다미-씩우다, 안스럽다, 안절부절-못하다, 앓은뱅이-저울, 알-사탕, 암-내, 앞-지르다, 애-벌레, 얇은-꺾, 언뜻, 언제나, 얼룩-말, 열심-히, 입-담, 자배기, 전봇-대, 쥐락-펴락, -지만, 짓고-땡, 짧은-작, 찹-쌀, 청대-콩, 침-범

- ㄴ: -게시리, 겸지-겸지/겸두-겸두, 참-감자, 낫우다, 골목-자기, 광우리, 호구, 멀-국/말-국, 군용-어음, 길-앞잡이, 까치-다리, 말뚝-모, 나루, 민-도리, 기룡-지거리, 다사-하다, 다구, 담배-꼬투리/담배-꽂치/담배-꽂추, 대-설대, 성냥-일, 뒤어-내다, 뒤꼭지-치다, 등-침, 등-떠리, 등경-걸이, 떡-충이, 딸꾹-단추, 우미다, 먼-발치기, 뒷-발톱, 주-사니, 목-멧히다, 보릿짚-모자, 열-바가지/열-박, 바람-고다리, 나절-가웃, 독대, 뉘연-히, 법-받다, 다시마-자반, 부끄리다, 부스러지, 부지깽이, 부항-항아리, 푸르락-붉으락, 옆-사리미, 빙충-맞이, 빠-치다, 왜긋다, 느물다, 사로-채우다, 살-막이, 상투-꼬부랑이, 생강-손이, 새벽-별, 풋-머슴, 애운-하다, 속-소리, 팔목-시계/팔뚝-시계, 손-구루마, 고랑-쇠, 수도-고동, 숙-지다, 골-집, 술-꾸러기/술-부대/, 술-보/술-푸대, 찬-땀, 신기-스럽다, 쪽-밤, 쏜살-로, 영판, 안-늑시, 안다미-시키다, 안-슬프다, 안절부절-하다, 앓은-저울, 구슬-사탕, 곁땀-내, 따라-먹다, 어린-벌레, 물탄-꺾, 편뚝, 노다지, 워라-말, 열심-으로, 말-담, 너벅지, 전선-대, 펴락-쥐락, -지만

서도, 지어-땡/짓고-땡이, 짜른-작, 이-참쌀, 푸른-콩, 갈-범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>

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,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.

- 복수 표준어: 가는-허리/잔-허리, 가락-옛/가래-옛, 가뭄/가물, 가없다/가엾다, 감감-무소식/감감-소식, 개수-통/설거지-통, 개숫-물/설거지-물, 갱-옛/검은-옛, -거리다/-대다, 거위-배/횃-배, 갯/해, 게올러-빠지다/게올러-터지다, 고깃-간/푸줏-간, 곰곰/곰곰-이, 관계-없다/상관-없다, 교정-보다/준-보다, 구들-재/구재, 귀통-머리/귀통-배기, 극성-떨다/극성-부리다, 기세-부리다/기세-피우다, 기승-떨다/기승-부리다, 깃-저고리/배내-옷/배넛-저고리, 꼬까/때때/고까, 꼬리-별/살-별, 꽃-도미/붉-돔, 나귀/당-나귀, 날-걸/세-뿔, 내리-글씨/세로-글씨, 녕쿨/덩굴, 념/쪽, 눈-대중/눈-어림/눈-짐작, 느리-광이/느림-보/늘-보, 늣-모/마냥-모, 다기-지다/다기-차다, 다달-이/매-달, -다마다/-고말고, 다박-나룻/다박-수염, 닭의-장/닭-장, 댕-돌/뿔-돌, 뎡-창/겉-창, 독장-치다/독판-치다, 동자-기둥/쪼구미, 돼지-감자/똥단지, 되우/되통/되게, 두동-무니/두동-사니, 뒛-갈망/뒛-감당, 뒛-말/뒛-소리, 들락-거리다/들랑-거리다, 들락-날락/들랑-날랑, 땀-전/땀-청, 땅-콩/호-콩, 땀-감/땀-거리, -뜨리다/-트리다, 뜯-것/뜯-귀신, 마룻-줄/용총-줄, 마-파람/앞-바람, 만장-판/만장-중(滿場中), 만큼/만치, 말-동무/말-벗, 매-갈이/매-조미, 매-통/목-매, 먹-새/먹음-새, 멀찌감치/멀찌가니/멀찍-이, 먹-통/산-먹/산-먹통, 면-치레/외면-치레, 모-내다/모-심다, 모쪼록/아무쪼록, 목판-되/모-되, 목화-씨/면화-씨, 무심-결/무심-중, 물-봉숭아/물-봉선화, 물-부리/뺨-부리, 물-심부름/물-시중, 물추리-나무/물추리-막대, 물-타작/진-타작, 민둥-산/별거숭이-산, 밑-층/아래-층, 바깥-벽/밭-벽, 바른/오른[右], 발-모가지/발-목쟁이, 버들-강아지/버들-개지, 벌레/버러지, 변덕-스럽다/변덕-맞다, 보-조개/불-우물, 보통-내기/여간-내기/예사-내기, 불-따구니/불-통이/불-때기, 부침개-질/부침-질/지짐-질, 불뚥-앉다/등화-지다/등화-앉다, 불-사르다/사르다, 비발/비용(費用), 뽕두라지/뽕루지, 살-괭이/샅, 삽살-개/삽사리, 상두-꾼/상여-꾼, 상-씨름/소-걸이, 생/새앙/생강, 생-뿔/새앙-뿔/생강-뿔, 생-철/양-철, 서럽다/썰다, 서방-질/화냥-질, 성글다/성기다, -(으)세요/-(으)셔요, 송이/송이-버섯, 수수-깡/수숫-대, 술-안주/안주, -스레하다/-스름하다, 시늉-말/흉내-말, 시새/세사(細沙), 신/신발, 신주-보/독보(檀襪), 심술-꾸러기/심술-쟁이, 씹쓰레-하다/씹쓰름-하다, 아귀-세다/아귀-차다, 아래-위/위-아래, 아무튼/어떻든/어쨌든/하여튼/여하튼, 앓음-새/앓음-앓음, 알은-척/알은-체, 애-갈이/애벌-갈이, 애꾸눈-이/외눈-박이, 양념-감/양념-거리, 어금버금-하다/어금지금-하다, 어기여차/어여차, 어림-잡다/어림-치다, 어이-없다/어처구니-없다, 어저께/어제, 언덕-바지/언덕-배기, 얼렁-뚱뚱/엄병-땡, 여왕-별/장수-별, 여쭙다/여쭙다, 여태/입때, 여태-껏/이제-껏/입때-껏, 역성-들다/역성-하다, 연-달다/잇-달다, 옛-가락/옛-가래, 옛-기름/옛-길금, 옛-반대기/옛-자박, 오사리-잡놈/오색-잡놈, 옥수수/강냉이, 왕골-기직/왕골-자리, 외겹-실/외울-실/홀-실, 외손-잡이/한손-

잡이, 욕심-꾸러기/욕심-쟁이, 우레/천둥, 우지/울-보, 올라-대다/올라-메다, 의심-스럽다/의심-쩍다, -이에요/-이어요, 이틀-거리/당-고금, 일일-이/하나-하나, 일찌감치/일찌거니, 입찬-말/입찬-소리, 자리-옷/잠-옷, 자물-쇠/자물-통, 장가-가다/장가-들다, 재롱-떨다/재롱-부리다, 제-가끔/제-각기, 좀-처럼/좀-체, 줄-꾼/줄-잡이, 중신/중매, 짚-단/짚-뭇, 쪽/편, 차차/차츰, 책-씻이/책-거리, 척/체, 천연덕-스럽다/천연-스럽다, 철-따구니/철-딱서니/철-딱지, 추어-올리다/추어-주다, 축-가다/축-나다, 침-놓다/침-주다, 통-꼭지/통-젓, 파자-쟁이/해자-쟁이, 편지-투/편지-틀, 한턱-내다/한턱-하다, 해웃-값/해웃-돈, 혼자-되다/홀로-되다, 흙-가다/흙-나다/흙-지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3항>

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꼬나풀, 나팔-꽃, 넉, 부엌, 살-괭이, 칸, 털어-먹다
- ㄴ: 꼬나불, 나발-꽃, 녁, 부엌, 삶-괭이, 간, 떨어-먹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4항>

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가을-갈이, 거시기, 분침
- ㄴ: 가을-카리, 거시키, 분침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5항>

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강남-콩, 고삿, 사글-세, 울력-성당
- ㄴ: 강남-콩, 고삐, 삭월-세, 위력-성당

다만,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,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)

- ㄱ: 갈비, 갓모, 굴-젓, 말-곁, 물-수란, 밀-뜨리다, 적-이, 휴지
- ㄴ: 가리, 갈모, 구-젓, 말-곶, 물-수랴, 미-뜨리다, 저으기, 수지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6항>

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,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돌, 돌-째, 셋-째, 넷-째, 빌리다

- ㄴ: 둘, 두-째, 세-째, 네-째, 빌다

다만, '둘째'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'두째'로 한다.

- 열두-째(단, 열두 개째의 뜻은 '열둘째'로), 스물두-째(단, 스물두 개째의 뜻은 '스물둘째'로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7항>

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'수-'로 통일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수-꿩, 수-나사, 수-놈, 수-사돈, 수-소, 수-은행나무

- ㄴ: 수-꿩/숫-꿩, 숫-나사, 숫-놈, 숫-사돈, 숫-소, 숫-은행나무

다만 1.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. 접두사 '암-'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수-강아지, 수-개, 수-컷, 수-기와, 수-닭, 수-탕나귀, 수-돌쩌귀, 수-돼지, 수-평아리

- ㄴ: 숫-강아지, 숫-개, 숫-것, 숫-기와, 숫-닭, 숫-당나귀, 숫-돌쩌귀, 숫-돼지, 숫-병아리

다만 2.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'숫-'으로 한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숫-양, 숫-염소, 숫-쥐

- ㄴ: 수-양, 수-염소, 수-쥐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>

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강충-강충, -동이, 발가-송이, 보통이, 봉죽, 뽕정-다리, 아서, 아서라, 오뚝-이, 주주

- ㄴ: 강충-강충, -동이, 발가-송이, 보통이, 봉죽, 뽕장-다리, 앓아, 앓아라, 오뚝-이, 주초

다만,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부조(扶助), 사돈(査頓), 삼촌(三寸)

- ㄴ: 부주, 사둔, 삼춘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표준어 사정 원칙 제9항>

'ㅣ'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,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-내기, 냄비, 동댕이-치다

- ㄴ: -나기, 남비, 동당이-치다

[붙임 1] 다음 단어는 'ㅣ'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

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아지랑이

- ㄴ: 아지랭이

[붙임 2] 기술자에게는 '-장이', 그 외에는 '-쟁이'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(ㄱ을 표준어로 삼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미장이, 유기장이, 멋쟁이, 소금쟁이, 담쟁이-덩굴, 골목쟁이, 발목쟁이

- ㄴ: 미쟁이, 유기쟁이, 멋장이, 소금장이, 담장이-덩굴, 골목장이, 발목장이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0항>

한자음 '녀, 뇨, 뉴, 니'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, 두음 법칙에 따라 '여, 요, 유, 이'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여자(女子), 연세(年歲), 요소(尿素), 유대(紐帶), 이토(泥土), 익명(匿名)

- ㄴ: 녀자, 년세, 뇨소, 뉴대, 니토, 닉명

다만,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'냐, 녀' 음을 인정한다.

- 냥(兩), 냥쫘(兩-), 년(年)(몇 년)

[붙임 1]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.

- 남녀(男女), 당뇨(糖尿), 결뉴(結紐), 은닉(隱匿)

[붙임 2]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, 뒷말의 첫소리가 'ㄴ'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.

- 신여성(新女性), 공염불(空念佛), 남존여비(男尊女卑)

[붙임 3]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.

- 한국여자대학, 대한요소비료회사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1항>

한자음 '랴, 려, 례, 료, 류, 리'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, 두음 법칙에 따라 '야, 여, 예, 요, 유, 이'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양심(良心), 역사(歷史), 예의(禮儀), 용궁(龍宮), 유행(流行), 이발(理髮)

- ㄴ: 량심, 력사, 례의, 룡궁, 류행, 리발

다만,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.

- 리(里): 몇 리냐?, 리(理): 그럴 리가 없다.

[붙임 1]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.

- 개량(改良), 선량(善良), 수력(水力), 협력(協力), 사례(謝禮), 혼례(婚禮), 와룡(臥龍), 쌍룡

(雙龍), 하류(下流), 급류(急流), 도리(道理), 진리(眞理)

다만, 모음이나 'ㄴ' 받침 뒤에 이어지는 '렬, 룰'은 '열, 율'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.)

- ㄱ: 나열(羅列), 치열(齒列), 비열(卑劣), 규율(規律), 비율(比率), 실패율(失敗率), 분열(分裂), 선열(先烈), 진열(陳列), 선율(旋律), 전율(戰慄), 백분율(百分率)

- ㄴ: 나렬, 치렬, 비렬, 규룰, 비룰, 실패룰, 분렬, 선렬, 진렬, 선룰, 전룰, 백분룰

[붙임 2]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.

- 신립(申昝), 최린(崔麟), 채륜(蔡倫), 하륜(河崙)

[붙임 3]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.

- 국련(국제 연합), 한시련(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)

[붙임 4]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, 뒷말의 첫소리가 'ㄴ' 또는 'ㄹ'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.

- 역이용(逆利用), 연이율(年利率), 열역학(熱力學), 해외여행(海外旅行)

[붙임 5]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(數)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.

- 서울여관, 신흥이발관, 육천육백육십육(六千六百六十六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2항>

한자음 '라, 래, 로, 뢰, 루, 르'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, 두음 법칙에 따라 '나, 내, 노, 뇌, 누, 느'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낙원(樂園), 내일(來日), 노인(老人), 뇌성(雷聲), 누각(樓閣), 능묘(陵墓)

- ㄴ: 락원, 래일, 로인, 뢰성, 루각, 룡묘

[붙임 1]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.

- 쾌락(快樂), 극락(極樂), 거래(去來), 왕래(往來), 부로(父老), 연로(年老), 지뢰(地雷), 낙뢰(落雷), 고루(高樓), 광한루(廣寒樓), 동구릉(東九陵), 가정란(家庭欄)

[붙임 2]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.

- 내내월(來來月), 상노인(上老人), 중노동(重勞動), 비논리적(非論理的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3항>

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딱딱, 썩썩, 씹씹, 똑똑똑똑, 쓱쓱쓱쓱, 연연불망(戀戀不忘), 유유상종(類類相從), 누누이(屢屢-), 꺾꺾하다, 놀놀하다, 눅눅하다, 밋밋하다, 싹싹하다, 쌉쌀하다, 씹쓸하다, 짹짹하다

- ㄴ: 딱딱, 썩썩, 씹식, 똑딱똑딱, 쓱삭쓱삭, 연련불망, 유류상종, 누루이, 꺾끗하다, 놀롤하다, 능눅하다, 민밋하다, 싹삭하다, 싹살하다, 씹슬하다, 짹잘하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4항>

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.

- 떡이, 떡을, 떡에, 떡도, 떡만
- 손이, 손을, 손에, 손도, 손만
- 팔이, 팔을, 팔에, 팔도, 팔만
- 밤이, 밤을, 밤에, 밤도, 밤만
- 집이, 집을, 집에, 집도, 집만
- 옷이, 옷을, 옷에, 옷도, 옷만
- 콩이, 콩을, 콩에, 콩도, 콩만
- 낮이, 낮을, 낮에, 낮도, 낮만
- 꽃이, 꽃을, 꽃에, 꽃도, 꽃만
- 발이, 발을, 발에, 발도, 발만
- 앞이, 앞을, 앞에, 앞도, 앞만
- 밖이, 밖을, 밖에, 밖도, 밖만
- 뉘이, 뉘을, 뉘에, 뉘도, 뉘만
- 흙이, 흙을, 흙에, 흙도, 흙만
- 삶이, 삶을, 삶에, 삶도, 삶만
- 여덟이, 여덟을, 여덟에, 여덟도, 여덟만
- 굶이, 굶을, 굶에, 굶도, 굶만
- 값이, 값을, 값에, 값도, 값만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5항>

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.

- 먹다, 먹고, 먹어, 먹으니
- 신다, 신고, 신어, 신으니
- 믿다, 믿고, 믿어, 믿으니
- 울다, 울고, 울어, (우니)
- 넘다, 넘고, 넘어, 넘으니
- 입다, 입고, 입어, 입으니
- 웃다, 웃고, 웃어, 웃으니
- 찾다, 찾고, 찾아, 찾으니
- 좇다, 좇고, 좇아, 좇으니

- 같다, 같고, 같아, 같으니
- 높다, 높고, 높아, 높으니
- 좋다, 좋고, 좋아, 좋으니
- 깎다, 깎고, 깎아, 깎으니
- 앓다, 앓고, 앓아, 앓으니
- 많다, 많고, 많아, 많으니
- 늡다, 늡고, 늡어, 늡으니
- 젊다, 젊고, 젊어, 젊으니
- 넓다, 넓고, 넓어, 넓으니
- 훑다, 훑고, 훑어, 훑으니
- 읊다, 읊고, 읊어, 읊으니
- 읊다, 읊고, 읊아, 읊으니
- 없다, 없고, 없어, 없으니
- 있다, 있고, 있어, 있으니

[붙임 1]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,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,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(1)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

- 넘어지다, 늘어나다, 늘어지다, 돌아가다, 되짚어가다, 들어가다, 떨어지다, 벌어지다, 엮어지다, 접어들다, 틀어지다, 흠어지다

(2) 본뜻에서 멀어진 것

- 드러나다, 사라지다, 쓰러지다

[붙임 2]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는 ‘요’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‘오’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이것은 책이오., 이리로 오시오., 이것은 책이 아니오.
- ㄴ: 이것은 책이요., 이리로 오시요., 이것은 책이 아니요.

[붙임 3]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‘이요’는 ‘이요’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 붓이요, 또 저것은 먹이다.
- ㄴ: 이것은 책이오, 저것은 붓이오, 또 저것은 먹이다.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6항>

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‘ㅏ, ㅑ’일 때에는 어미를 ‘-아’로 적고,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‘-어’로 적는다.

1. ‘-아’로 적는 경우

- 나아, 나아도, 나아서
- 막아, 막아도, 막아서
- 얹아, 얹아도, 얹아서
- 돌아, 돌아도, 돌아서
- 보아, 보아도, 보아서

2. '-어'로 적는 경우

- 개어, 개어도, 개어서
- 꺾어, 꺾어도, 꺾어서
- 되어, 되어도, 되어서
- 베어, 베어도, 베어서
- 쉬어, 쉬어도, 쉬어서
- 저어, 저어도, 저어서
- 주어, 주어도, 주어서
- 피어, 피어도, 피어서
- 희어, 희어도, 희어서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7항>

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'요'는 '요'로 적는다.

- 읽어, 읽어요
- 참으리, 참으리요
- 좋지, 좋지요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8항>

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,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.

1. 어간의 끝 'ㄹ'이 줄어질 적

- 갈다: 가니, 간, 갑니다, 가시다, 가오
- 놀다: 노니, 논, 놀니다, 노시다, 노오
- 불다: 부니, 분, 붙니다, 부시다, 부오
- 등글다: 등그니, 등근, 등급니다, 등그시다, 등그오
- 어질다: 어지니, 어진, 어집니다, 어지시다, 어지오

[붙임]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'ㄹ'이 준 대로 적는다.

- 마지못하다, 마지않다, (하)다마다, (하)자마자, (하)지 마라, (하)지 마(아)

2. 어간의 끝 'ㅅ'이 줄어질 적

- 굿다: 그어, 그으니, 그었다
- 낫다: 나아, 나으니, 나았다
- 잇다: 이어, 이으니, 이었다
- 짓다: 지어, 지으니, 지었다

3. 어간의 끝 'ㅎ'이 줄어질 적

- 그렇다: 그러니, 그릴, 그러면, 그러오
- 까맣다: 까마니, 까말, 까마면, 까마오
- 동그랗다: 동그라니, 동그랄, 동그라면, 동그라오
- 퍼렇다: 퍼러니, 퍼릴, 퍼러면, 퍼러오
- 하얗다: 하야니, 하얄, 하야면, 하야오

4. 어간의 끝 'ㅌ, ㅡ'가 줄어질 적

- 푸다: 퍼, 뻤다
- 뜨다: 떴, 뒸다
- 끄다: 꺼, 껴다
- 크다: 커, 컸다
- 담그다: 담가, 담갔다
- 고프다: 고파, 고폳다
- 따르다: 따라, 따랐다
- 바쁘다: 바빠, 바빴다

5. 어간의 끝 'ㄷ'이 'ㄹ'로 바뀔 적

- 걷다[步]: 걸어, 걸으니, 걸었다
- 듣다[聽]: 들어, 들으니, 들었다
- 묻다[問]: 물어, 물으니, 물었다
- 싣다[載]: 실어, 실으니, 실었다

6. 어간의 끝 'ㅂ'이 'ㅌ'로 바뀔 적

- 김다: 기워, 기우니, 기웠다
- 굽다[炙]: 구워, 구우니, 구웠다
- 가깝다: 가까워, 가까우니, 가까웠다

- 괴롭다: 괴로워, 괴로우니, 괴로웠다
- 맵다: 맵워, 맵우니, 맵았다
- 무겁다: 무거워, 무거우니, 무거웠다
- 밍다: 밍워, 밍우니, 밍았다
- 쉽다: 쉬워, 쉬우니, 쉬웠다

다만, '돕-', '곱-'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'-아'가 결합되어 '와'로 소리 나는 것은 '-와'로 적는다.

- 돕다[助]: 도와, 도와서, 도와도, 도왔다
- 곱다[麗]: 고와, 고와서, 고와도, 고왔다

7. '하다'의 활용에서 어미 '-아'가 '-여'로 바뀔 적

- 하다: 하여, 하여서, 하여도, 하여라, 하였다

8. 어간의 끝음절 '르' 뒤에 오는 어미 '-어'가 '-러'로 바뀔 적

- 이르다[至]: 이르러, 이르렀다
- 노르다: 노르러, 노르렀다
- 누르다: 누르러, 누르렀다
- 푸르다: 푸르러, 푸르렀다

9. 어간의 끝음절 '르'의 'ㄹ'이 'ㄹ'이 줄고, 그 뒤에 오는 어미 '-아/-어'가 '-라/-러'로 바뀔 적

- 가르다: 갈라, 갈랐다
- 부르다: 불러, 불렀다
- 거르다: 걸러, 걸렀다
- 오르다: 올라, 올랐다
- 구르다: 굴러, 굴렀다
- 이르다: 일러, 일렀다
- 버르다: 별러, 별렀다
- 지르다: 질러, 질렀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19항>

어간에 '-이'나 '-음/-ㅁ'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'-이'나 '-히'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1. '-이'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

- 길이, 깊이, 높이, 다듬이, 땀받이, 달맞이, 먹이, 미단이, 벌이, 벼훅이, 살림살이, 쇠불이

2. '-음/-ㅁ'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

- 걸음, 묶음, 믿음, 얼음, 엮음, 울음, 웃음, 줄음, 죽음, 앓

3. '-이'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

- 같이, 굳이, 길이, 높이, 많이, 실없이, 종이, 짓궂이

4. '-히'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

- 밝히, 익히, 작히

다만, 어간에 '-이'나 '-음'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- 굽도리, 다리[髀], 목거리(목병), 무녀리, 코끼리, 거름(비료), 고름[膿], 노름(도박)

[붙임] 어간에 '-이'나 '-음'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(1) 명사로 바뀐 것

- 귀머거리, 까마귀, 너머, 뜨더귀, 마감, 마개, 마중, 무덤, 비렁뱅이, 쓰레기, 올가미, 주검

(2) 부사로 바뀐 것

- 거뭇거뭇, 너무, 도로, 뜨덤뜨덤, 바투, 불긋불긋, 비로소, 오긋오긋, 자주, 차마

(3)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

- 나마, 부터, 조차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0항>

명사 뒤에 '-이'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1. 부사로 된 것

- 곳곳이, 날날이, 뭉뭉이, 살살이, 앞앞이, 집집이

2. 명사로 된 것

- 곰배팔이, 바둑이, 삼발이, 애꾸눈이, 육손이, 절뚝발이/절름발이

[붙임] '-이'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- 꼬락서니, 꼬트머리, 모가치, 바가지, 바깥

- 놓치다, 덮치다, 떠받치다, 받치다, 받치다, 부딪치다, 뺨치다, 얹치다, 부딪뜨리다/부딪
트리다, 쓸뜨리다/쓸트리다, 젓뜨리다/젓트리다, 찢뜨리다/찢트리다, 흘뜨리다/흘트리다

[붙임] '-업-, -읍-, -브-'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.

- 미덥다, 우습다, 미쁘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3항>

'-하다'나 '-거리다'가 붙는 어근에 '-이'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깔쭉이, 꿀꿀이, 눈깜짝이, 더떨이, 배불뚝이, 뼈죽이, 살살이, 싹싹이, 오뚝이, 코납작이, 푸석이, 흘쭉이

- ㄴ: 깔쭈기, 꿀꾸리, 눈깜짜기, 더퍼리, 배불뚝기, 뼈죽기, 살사리, 싹새기, 오뚜기, 코납자기, 푸서기, 흘쭈기

[붙임] '-하다'나 '-거리다'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'-이'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- 개구리, 귀뚜라미, 기러기, 깍두기, 팽과리, 날라리, 누더기, 동그라미, 두드러기, 딱따구리, 매미, 부스러기, 뼈꾸기, 얼루기, 칼썩두기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4항>

'-거리다'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'-이다'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깜짝이다, 꾸벅이다, 끄덕이다, 뒤척이다, 들먹이다, 망설이다, 번득이다, 번쩍이다, 속삭이다, 숙덕이다, 울먹이다, 움직이다, 지껄이다, 퍼덕이다, 허덕이다, 혈떡이다

- ㄴ: 깜짜기다, 꾸버기다, 끄더기다, 뒤쳐기다, 들머기다, 망서리다, 번드기다, 번쩌기다, 속사기다, 숙더기다, 울머기다, 움지기다, 지꺼리다, 퍼더기다, 허더기다, 혈떠기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5항>

'-하다'가 붙는 어근에 '-히'나 '-이'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, 부사에 '-이'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1. '-하다'가 붙는 어근에 '-히'나 '-이'가 붙는 경우

- 급히, 꾸준히, 도저히, 딱히, 어렵듯이, 깨끗이

[붙임] '-하다'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.

- 갑자기, 반드시(꼭), 슬며시

2. 부사에 '-이'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
- 곰곰이, 더욱이, 생긋이, 오뚝이, 일찍이, 해죽이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6항>

'-하다'나 '-없다'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'-하다'나 '-없다'를 밝히어 적는다.

1. '-하다'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
- 딱하다, 술하다, 착하다, 텅텅하다, 폭하다
2. '-없다'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
- 부질없다, 상없다, 시름없다, 열없다, 하염없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7항>

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
- 국말이, 꺾꽂이, 꽃잎, 끝장, 물난리, 밀천, 부엌일, 싫증, 옷안, 웃웃, 젖몸살, 첫아들, 칼날, 팔알, 헛웃음, 홀아비, 홀몸, 홀내
- 값없다, 겉늬다, 굶주리다, 낫잡다, 맛먹다, 받내다, 뽕놓다, 빗나가다, 빗나다, 새파랗다, 섯노랗다, 시꺼멓다, 싯누렇다, 엇나가다, 옆누르다, 엇든다, 옷오르다, 짓이기다, 헛되다

[붙임 1]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.

- 할아버지, 할아범

[붙임 2]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

- 골병, 골탕, 골탕, 며칠, 아재비, 오라비, 업신여기다, 부리나케

[붙임 3] '이[齒, 虱]'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'니' 또는 '리'로 소리 날 때에는 '니'로 적는다.

- 간니, 덧니, 사랑니, 송곳니, 앞니, 어금니, 윗니, 젓니, 톱니, 틀니, 가랑니, 머릿니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8항>

끝소리가 'ㄹ'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'ㄹ'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.

- 다달이(달-달-이), 따님(딸-님), 마되(말-되), 마소(말-소), 무자위(물-자위), 바느질(바늘-질), 부삽(불-삽), 부손(불-손), 싸전(쌀-전), 여닫이(열-닫이), 우짚다(울-짚다), 화살(활-살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29항>

끝소리가 'ㄹ'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'ㄹ' 소리가 'ㄷ' 소리로 나는 것은 'ㄷ'으로 적는다.

- 반진고리(바느질~), 사흔날(사흘~), 삼진날(삼질~), 선달(설~), 손가락(술~), 이튼날(이틀~), 잠주름(잘~), 풀소(풀~), 선부르다(설~), 잠다듬다(잘~), 잠다랴다(잘~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0항>

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.

1.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
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
- 고랫재, 귓밥, 나룻배, 나뭇가지, 냇가, 댕가지, 뒷갈망, 맷돌, 머릿기름, 모깃불, 못자리, 바닷가, 뱃길, 벧가리, 부싯돌, 선짓국, 쇠조각, 아랫집, 우렁잇속, 잇자국, 잣더미, 조갯살, 찻집, 쳇바퀴, 킷값, 핏대, 햇벌, 헛바늘

(2) 뒷말의 첫소리 'ㄴ, ㄹ' 앞에서 'ㄴ' 소리가 덧나는 것

- 멧나물, 아랫니, 텃마당, 아랫마을, 뒷머리, 잇몸, 깻묵, 냇물, 빗물

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 소리가 덧나는 것

- 도리깃열, 뒷웃, 두렛일, 뒷일, 뒷입맛, 베깃잇, 옷잇, 깃읍, 나뭇읍, 댕읍

2.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
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
- 귓병, 머릿방, 뱃병, 붓득, 사жат밥, 섯강, 아랫방, 자릿세, 전셋집, 찻잔, 찻종, 좇국, 콧병, 텃줄, 텃세, 핏기, 햇수, 횃가루, 횃배

(2) 뒷말의 첫소리 'ㄴ, ㄹ' 앞에서 'ㄴ' 소리가 덧나는 것

- 겻날, 제삿날, 훗날, 텃마루, 양칫물

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 소리가 덧나는 것

- 가윗일, 사삿일, 예삿일, 훗일

3.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

- 곳간(庫間), 섯방(貰房), 숫자(數字), 찻간(車間), 텃간(退間), 횃수(回數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1항>

두 말이 어울릴 적에 'ㅃ' 소리나 'ㅎ'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.

1. 'ㅃ' 소리가 덧나는 것

- 댕싸리(대ㅃ싸리), 댕쌀(메ㅃ쌀), 뵙씨(벼ㅃ씨), 입때(이ㅃ때), 입쌀(이ㅃ쌀), 접때(저ㅃ때),

좁쌀(조ㅂ쌀), 햅쌀(해ㅂ쌀)

2. 'ㅎ' 소리가 덧나는 것

- 머리카락(머리ㅎ가락), 살코기(살ㅎ고기), 수캐(수ㅎ개), 수컷(수ㅎ것), 수탉(수ㅎ닭), 안팎(안ㅎ밖), 암캐(암ㅎ개), 암컷(암ㅎ것), 암탉(암ㅎ닭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2항>

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.

- 본말: 기러기야, 어제그저께, 어제저녁, 가지고, 가지지, 디디고, 디디지
- 준말: 기럭아, 엇그저께, 엇저녁, 갓고, 갓지, 딛고, 딛지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3항>

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그것은, 그것이, 그것으로, 나는, 나를, 너는, 너를, 무엇을, 무엇이
- 준말: 그건, 그게, 그걸로, 난, 날, 넌, 널, 뭇을/무얼/뭇, 뭇이/무에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4항>

모음 'ㅏ, ㅑ'로 끝난 어간에 '-아/-어, -았-/~었-'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가아, 나아, 타아, 서어, 켜어, 펴어, 가았다, 나았다, 타았다, 서었다, 켜었다, 펴었다
- 준말: 가, 나, 타, 서, 켜, 펴, 갔다, 났다, 탔다, 섰다, 켜다, 폈다

[붙임 1] '내, ㅑ' 뒤에 '-어, -었-'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개어, 내어, 베어, 세어, 개었다, 내었다, 베었다, 세었다
- 준말: 개, 내, 베, 세, 겼다, 났다, 뻗다, 섰다

[붙임 2] '하여'가 한 음절로 줄어서 '해'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하여, 더하여, 흔하여, 하였다, 더하였다, 흔하였다
- 준말: 해, 더해, 흔해, 했다, 더했다, 흔했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5항>

모음 'ㅓ, ㅕ'로 끝난 어간에 '-아/-어, -았-/~었-'이 어울려 'ㅓ/ㅕ, ㅖ/ㅗ'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꼬아, 보아, 쏘아, 두어, 쏘어, 주어, 꼬았다, 보았다, 쏘았다, 두었다, 쏘았다, 주었다
- 준말: 꺾, 봐, 쏘, 뒤, 쏘, 줘, 꺾다, 뵈다, 쏘다, 뒀다, 쏘다, 줬다

[붙임 1] '놓아'가 '놔'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[붙임 2] '니' 뒤에 '-어, -었-'이 어울려 '내, 냐'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괴어, 되어, 뵈어, 쇠어, 씌어, 괴었다, 되었다, 뵈었다, 쇠었다, 씌었다
- 준말: 꽤, 돼, 뵈, 쇠, 썬, 갸다, 났다, 뵈다, 냐다, 썬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6항>

'ㅣ' 뒤에 '-어'가 와서 'ㅣ'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가지어, 건디어, 다니어, 막히어, 버티어, 치이어, 가지었다, 건디었다, 다니었다, 막히었다, 버티었다, 치이었다
- 준말: 가져, 건더, 다녀, 막혀, 버터, 치여, 가졌다, 건뒸다, 다녔다, 막혔다, 버뒸다, 치었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7항>

'ㅏ, ㅑ, ㅓ, ㅕ, ㅡ'로 끝난 어간에 '-이-'가 와서 각각 'ㅐ, ㅒ, ㅖ, ㅜ, ㅡ'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싸이다, 펴이다, 보이다, 누이다, 뜨이다, 쓰이다
- 준말: 싸다, 폐다, 뵈다, 뉘다, 띄다, 씩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8항>

'ㅏ, ㅓ, ㅕ, ㅡ' 뒤에 '-이어'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싸이어, 보이어, 쏘이어, 누이어, 뜨이어, 쓰이어, 트이어
- 준말: 싸어 싸여, 뵈어 보여, 씌어 쏘여, 뉘어 누여, 띄어, 씩어 쓰여, 띄어 트여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39항>

어미 '-지' 뒤에 '않-'이 어울려 '-잖-'이 될 적과 '-하지' 뒤에 '않-'이 어울려 '-찮-'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그렇지 않은, 적지 않은, 만만하지 않다, 변변하지 않다
- 준말: 그렇잖은, 적잖은, 만만찮다, 변변찮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40항>

어간의 끝음절 '하'의 'ㅏ'가 줄고 'ㅎ'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.

- 본말: 간편하게, 연구하도록, 가하다, 다정하다, 정결하다, 흔하다
- 준말: 간편케, 연구토록, 가타, 다정타, 정결타, 흔타

[붙임 1] 'ㅎ'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.

- 않다, 앓고, 앓지, 앓든지, 그렇다, 그렇고, 그렇지, 그렇든지, 아무렇다, 아무렇고, 아무렇지, 아무렇든지, 어떻다, 어떻고, 어떻지, 어떻든지, 이렇다, 이렇고, 이렇지, 이렇든지, 저렇다, 저렇고, 저렇지, 저렇든지

[붙임 2] 어간의 끝음절 '하'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- 본말: 거북하지, 생각하건대, 생각하다 못해, 깨끗하지 않다, 넉넉하지 않다, 못하지 않다, 섭섭하지 않다, 익숙하지 않다

- 준말: 거북지, 생각건대, 생각다 못해, 깨끗지 않다, 넉넉지 않다, 못지않다, 섭섭지 않다, 익숙지 않다

[붙임 3]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.

- 결단코, 결코, 기필코, 무심코, 아무튼, 요컨대, 정녕코, 필연코, 하마터면, 하여튼, 한사코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1항>

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'이'로만 나는 것은 '-이'로 적고, '히'로만 나거나 '이'나 '히'로 나는 것은 '-히'로 적는다.

1. '이'로만 나는 것

- 가뵤이, 깨끗이, 나뵤이, 느긋이, 둥긋이, 따뜻이, 반듯이, 버젓이, 산뜻이, 의젓이, 가까이, 고이, 날카로이, 대수로이, 번거로이, 많이, 적이, 헛되이, 겹겹이, 번번이, 일일이, 집집이, 톸툸이

2. '히'로만 나는 것

- 극히, 급히, 딱히, 속히, 작히, 족히, 특히, 엄격히, 정확히

3. '이, 히'로 나는 것

- 솔직히, 가만히, 간편히, 나른히, 무단히, 각별히, 소홀히, 쓸쓸히, 정결히, 과감히, 꼼꼼히, 심히, 열심히, 급급히, 답답히, 섭섭히, 공평히, 능히, 당당히, 분명히, 상당히, 조용히, 간소히, 고요히, 도저히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2항>

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.

- 본음으로 나는 것: 승낙(承諾), 만난(萬難), 안녕(安寧), 분노(忿怒), 토론(討論), 오륙십(五六十), 목재(木材), 십일(十日), 팔일(八日)

- 속음으로 나는 것: 수락(受諾), 쾌락(快諾), 허락(許諾), 곤란(困難), 논란(論難), 의령(宜寧), 회령(會寧), 대로(大怒), 희로애락(喜怒哀樂), 의논(議論), 오뉴월, 유월(六月), 모과(木瓜),十方淨土, 시왕(十王), 시월(十月), 초파일(初八日)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3항>

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-(으)르거나, -(으)르걸, -(으)르게, -(으)르세, -(으)르세라, -(으)르수록, -(으)르시, -(으)르지, -(으)르지니라, -(으)르지라도, -(으)르지어다, -(으)르지언정, -(으)르진대, -(으)르진저, -을시다

- ㄴ: -(으)르거나, -(으)르걸, -(으)르게, -(으)르세, -(으)르세라, -(으)르수록, -(으)르씨, -(으)르찌, -(으)르찌니라, -(으)르찌라도, -(으)르찌어다, -(으)르찌언정, -(으)르찐대, -(으)르찐저, -을씨다

다만,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.

- -(으)르까?, -(으)르꼬?, -(스)느냐까?, -(으)리까?, -(으)르쏘냐?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4항>

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심부름꾼, 익살꾼, 일꾼, 장꾼, 장난꾼, 지게꾼, 때갈, 빗갈, 성갈, 귀때기, 볼때기, 판자때기, 뒤꿈치, 팔꿈치, 이마빠기, 코빠기, 객쩍다, 겸연쩍다

- ㄴ: 심부름꾼, 익살꾼, 일꾼, 장꾼, 장난꾼, 지겟꾼, 땃갈, 빗갈, 성갈, 콧대기, 볼대기, 판잣대기, 뒷꿈치, 팔꿈치, 이맛배기, 콧배기, 객적다, 겸연적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5항>

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맞추다(입을 맞춘다. 양복을 맞춘다.), 뺨치다(다리를 뺨친다. 멀리 뺨친다.)

- ㄴ: 맞추다, 뺨치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6항>

‘-더라, -던’과 ‘-든지’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.

1.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‘-더라, -던’으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., 깊은 물이 얕아졌다., 그렇게 좋던가?, 그 사람 말 잘하던데!,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.

- ㄴ: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., 깊은 물이 얕아졌다., 그렇게 좋든가?, 그 사람 말 잘하든데!,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.

2.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‘(-)든지’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.,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.

- ㄴ: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.,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.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7항>

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.

- 가름: 둘로 가름.
- 갈음: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.
- 거름: 풀을 썩힌 거름.
- 걸음: 빠른 걸음.
- 거치다: 영월을 거쳐 왔다.
- 견히다: 외상값이 잘 견힌다.
- 겹잡다: 겹잡을 수 없는 상태.
- 겹잡다: 겹잡아서 이틀 걸릴 일.
- 그러므로(그러니까): 그는 부지런하다. 그러므로 잘 산다.
- 그럼으로(써):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. 그럼으로(써) 은혜에 보답한다. (그렇게 하는 것으로)
- 노름: 노름판이 벌어졌다.
- 놀음(놀이): 즐거운 놀음.
- 느리다: 진도가 너무 느리다.
- 늘이다: 고무줄을 늘인다.
- 늘리다: 수출량을 더 늘린다.
- 다리다: 옷을 다린다.
- 달이다: 약을 달인다.
- 다치다: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.
- 닫히다: 문이 저절로 닫혔다.
- 닫치다: 문을 힘껏 닫쳤다.
- 마치다: 벌써 일을 마쳤다.
- 맞히다: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.
- 목거리: 목거리가 덧났다.
- 목걸이: 금목걸이, 은목걸이.
- 바치다: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.
- 받치다: 우산을 받치고 간다., 책받침을 받친다.
- 받히다: 쇠뿔에 받혔다.
- 발치다: 술을 체에 발친다.
- 반드시: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.
- 반듯이: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.
- 부딪치다: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.

- 부딪히다: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.
- 부치다: 힘이 부치는 일이다., 편지를 부친다., 논밭을 부친다., 빈대떡을 부친다., 식목일에 부치는 글., 회의에 부치는 안건., 인쇄에 부치는 원고.,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.
- 붙이다: 우표를 붙인다., 책상을 벽에 붙였다., 흥정을 붙인다., 불을 붙인다., 감시원을 붙인다., 조건을 붙인다., 취미를 붙인다., 별명을 붙인다.
- 시키다: 일을 시킨다.
- 식히다: 끓인 물을 식힌다.
- 아름: 세 아름 되는 둘레.
- 알음: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.
- 얇: 얇이 힘이다.
- 안치다: 밥을 안친다.
- 앉히다: 윗자리에 앉힌다.
- 어름: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.
- 얼음: 얼음이 얼었다.
- 이따가: 이따가 오너라.
- 있다가: 돈은 있다가도 없다.
- 저리다: 다친 다리가 저린다.
- 절이다: 김장 배추를 절인다.
- 조리다: 생선을 조린다. 통조림, 병조림.
- 줄이다: 마음을 줄인다.
- 주리다: 여러 날을 주렸다.
- 줄이다: 비용을 줄인다.
- 하노라고: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.
- 하느라고: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.
- -느니보다(어미):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.
- -는 이보다(의존 명사):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.
- -(으)리만큼(어미):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.
- -(으)ㄹ 이만큼(의존 명사):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.
- -(으)러(목적): 공부하러 간다.
- -(으)려(의도): 서울 가려 한다.
- (으)로서(자격):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.
- (으)로써(수단):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.
- -(으)므로(어미):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.
- (-ㅁ, -음)으로(써)(조사): 그는 믿음으로(써) 산 보람을 느꼈다.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5항>

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
1.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

- 소쩍새, 어깨, 오빠, 으뜸, 아끼다, 기쁘다, 깨끗하다, 어떠하다, 해쓷하다, 가끔, 거꾸로, 부쩍, 어찌, 이따금

2. 'ㄴ, ㄹ, ㄹ, ㅇ'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

- 산뜻하다, 잔뜩, 살짝, 훨씬, 담뱃, 움짚, 몽땅, 엉뚱하다

다만, 'ㄱ, ㅂ'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,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.

- 국수, 깎두기, 딱지, 색시, 싹둑(~싹둑), 법석, 갑자기, 몹시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6항>

'ㄷ, ㅌ'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'-이(-)'나 '-히-'가 올 적에는 그 'ㄷ, ㅌ'이 'ㅈ, ㅊ'으로 소리 나더라도 'ㄷ, ㅌ'으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만이, 해돋이, 굳이, 같이, 끝이, 활이다, 걷히다, 닫히다, 묻히다

- ㄴ: 마지, 해도지, 구지, 가치, 꼬치, 할치다, 거치다, 다치다, 무치다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7항>

'ㄷ'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'ㄷ'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'ㅌ'으로 적는다.

- 덧저고리, 돛자리, 엇셈, 웃어른, 핫옷, 무릎, 사뭇, 얼핏, 자칫하면, 뭇[衆], 옛, 첫, 헛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8항>

'계, 례, 메, 폐, 해'의 'ㄷ'은 'ㄴ'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'ㄷ'으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계수(桂樹), 사례(謝禮), 연메(連袂), 폐품(廢品), 혜택(惠澤), 계집, 핑계, 계시다

- ㄴ: 계수, 사례, 연메, 폐품, 혜택, 계집, 핑계, 계시다

다만,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.

- 계송(偈頌), 게시판(揭示板), 휴게실(休憩室)

- (참고) 한자 '偈, 揭, 憩'는 본음이 [계]이므로 'ㄷ'으로 적는다. 따라서 '계구(偈句), 계제(偈諦), 계기(揭記), 계방(揭榜), 계양(揭揚), 게재(揭載), 게시판(揭板), 계류(憩流), 계식(憩息), 게휴(憩休)' 등도 '계'로 적는다.

<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- 한글 맞춤법 제9항>

'의'나,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'ㄴ'은 'ㄷ'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'

ㄴ'로 적는다.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.)

- ㄱ: 의의(意義), 본의(本義), 무늬[紋], 보늬, 오늬, 하늬바람, 날리리, 닝큼, 띄어쓰기, 씹어, 티어, 희망(希望), 희다, 유희(遊戱)

- ㄴ: 의이, 본이, 무니, 보니, 오니, 하니바람, 날리리, 닝큼, 띠어쓰기, 씨어, 티어, 히망, 히다, 유희